

PHILOSOPHISCHE ANALYSW

제2판

논술 이분법

연습

카르마 아카데미아

PHILOSOPHISCHE
ANALYSW

안녕하세요. 카르마 아카데미아 원장 소테리아의 길입니다.

지난해, 저는 논술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이분법 자료를 제작하고, 제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배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논술을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당 자료를 블로그와 수험생 커뮤니티인 수만취, 오르비 등을 통해 무료로 배포하였습니다.

비록 첫 번째 자료는 부족한 점이 많았으나, 배포 과정에서 많은 학생들이 해당 자료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자료 제작과 학습 지원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으며, 이후 더 나은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금은 논술 학원 계약이 종료되고 학생들의 시험도 마무리된 시기로, 비교적 여유로운 시간을 활용하여 보다 완성도 높은 자료를 제작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에 제2판 자료를 제작하게 되었고, 드디어 그 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판에서는 단순히 기존 자료를 보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논술 학습의 핵심이 되는 독해력의 중요성과 함께 논술을 효과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더불어, 제 수업의 철학과 교육적 비전을 담아, 학생들이 논술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번 개정판이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 자료를 통해 더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성장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겸허히 수용하며, 앞으로도 학생들과 함께 성장하는 자료를 제작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카르마 아카데미아 원장
소테리아의 길

대치동에서 침삭 조교로 일하며 새끼 강사로 침삭을 담당하던 시절, 제가 가장 의아했던 점 중 하나는 학생들이 학원에서 글쓰기와 글 유형에 대한 전반적인 스킬을 배우면서도, 제시문을 오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은 글쓰기 기술을 익히고 삼단논법과 같은 구조를 배우며 자신감을 얻었지만, 정작 논술의 핵심인 제시문을 정확히 이해하고 수용하는 독해력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이러한 기술적 스킬과 이름만 바뀐 개념들을 익히며 뿌듯해했고, 이 현상은 학원의 커리큘럼 전반에 퍼져 있었습니다. 제가 강사로 발을 들이며 느낀 바는, 강사가 개념을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일이 비교적 편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강의에서 같은 개념을 설명하고, 시험 후 학생들이 그 개념을 적용한 답안을 확인하며, 마치 모든 문제가 정리되는 듯한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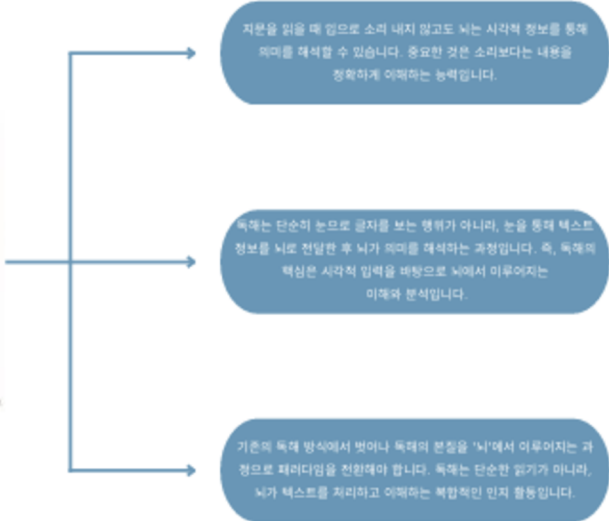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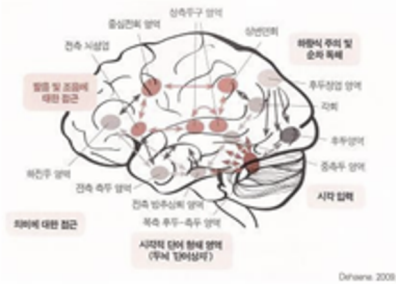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혹시 강사로서 경제적 안정과 편리함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제가 본분을 잊은 것은 아닌가?

이러한 고민 끝에 저는 제 수업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시험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독해력을 중심으로 모든 커리큘럼을 재구성하였고, 학생들이 실제 시험에서 제시문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논지를 펼칠 수 있도록 돕는 데에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1. 독해력이란.
2. 독해력을 제대로 키우는 방법
3. 이분법 자료

1. 서론: 독해란 무엇인가?

가. 독해력이란 무엇인가?



거센 바람이 불고 화재가 잇따르자 정(鄭)나라의 재상 자산(子産)에게 측근 인사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라고 요청했지만, 자산은 "천도(天譴)는 없고, 인도(人誼)는 가깝다."라며 거절했다. 그가 보기에 인간에게 일어나는 일은 더 이상 하늘의 뜻이 아니었고, 자연 변화를 파악하면 얼마든지 재난을 대비할 수 있고, 인간사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문제라 생각한 것이다. 이러한 생각에 기초하여 그는 인간의 문제 해결 범위를 확대했고, 정나라의 현실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그가 살았던 정나라는 요충지에 위치한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춘추 초기부터 제후국의 경탈 대상이었고, 실제로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기도 하였다. 춘추 중기에는 귀족 간의 정치 투쟁이 벌어져 자신이 ㉠질정(執政)하기 직전까지도 정변이 이어졌다. 따라서 귀족 정치의 위기를 수습하고 부국강병을 통해 강대한 제후국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이 정나라와 자신에게 부여된 과제였다. 그래서 그는 집권과 동시에 귀족에게 집중되었던 정치적, 경제적 특권을 약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 개혁을 추진하였다.

그는 귀족이 독점하던 토지를 백성들도 소유할 수 있게 하였고, 이것을 문서화하여 세금을 부과하였다. 이에 따라 백성들은 ㉡개간(開墾)을 통해 경작지를 늘려 생산을 증대하였고, 국가는 경작지를 계량하고 등록함으로써 민부(民富)를 국부(國富)로 연결시켰다. 아울러 그는 중간 계급도 정치 특권을 논할 수 있도록 하여 귀족들의 정치 기반을 약화시키는 한편,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형법을 성문화하여 정(鄭)에 세김으로써 모든 백성이 법을 알고 법에 따라 처신하게 하는 법치의 체계를 세웠다. 상문법 도입은 귀족의 임의적인 법 제정과 집행을 막아 그들의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조치였으므로 당시 귀족들은 이 개혁 조치에 반발하였다.

사전적으로 "독해력"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으로 정의됩니다.

논술에서 요구되는 독해력은 단순히 글 전체를 이해하는 능력이 아니라, 문장 단위에서의 독해력입니다. 이는 특히 어려운 문장을 마주했을 때, 그 문장을 자신의 언어로 재구성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독해력은 단순히 문장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사고의 연결과 확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즉, 한 문장에서 얻은 정보를 기반으로 다음 문장을 해석하고, 이를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은 논술 제시문을 정확히 분석하고, 자신의 논리를 설득력 있게 전개할 수 있게 됩니다.

(가)

㉔ 정립-원정립-종합 변증법의 논리적 구조를 일컫는 말이다. 변증법에 따라 철학적 논증을 수행한 인물로는 단연 헤겔이 거명된다. 변증법은 대등한 위상을 지니는 세 범주의 병렬이 아니라, 대립적인 두 범주가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어 가는 수렴적 상형성을 구조적 특징으로 한다. 헤겔에게서 변증법은 논증의 방식임을 넘어, 논증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이기도 하다. 즉 세계의 근원적 질서인 '이념'의 내적 구조도, 이념이 시·공간적 현실로서 드러나는 방식도 변증법적이기에, 이념과 현실은 하나의 체계를 이루며, 이 두 차원의 원리를 밝히는 철학적 논증도 변증법적 체계성을 ㉔ 지니야 한다.

헤겔은 미학도 철저히 변증법적으로 구성된 체계 안에서 다루고자 한다. 그에게서 미학의 대상인 예술은 종교, 철학과 마찬가지로 '절대정신'의 한 형태이다. 절대정신은 절대적 진리인 '이념'을 인식하는 인간 정신의 영역을 ㉔ 가리킨다. 예술·종교·철학은 저대적 지극히 도아한 내요. O 권 아타 r나아 이사 최사어

2022 수능 킬러 지문

독해력이 곧 이해력이 부족할 경우, 수험생은 지문이나 문단 간의 내용을 암기하는 데만 집중하게 됩니다. 즉, 이해력이 부족하면 텍스트의 의미를 파악하기보다는 단순히 외우는 것에 치중하게 됩니다.

[28~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과학 기술이 발달하고 인상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짐에 따라 법정에서 과학 기술 전문가의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유전자 감식에 의한 친자 확인,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범의 수사 등은 이미 낯설지 않고, 최근에는 연륜연대학에 기초한 과학적 증거의 활용도 새롭게 관심을 끌고 있다.

연륜연대학이란, 나이테를 분석하여 나무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과학이다. 온대에서 자라는 대부분의 수목은 매년 나이테를 하나씩 만들어 내는데, 그것의 폭, 형태, 화학적 성질 등은 수목이 노출되어 있는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나이테의 폭은 강수량이 많았던 해에는 넓게, 가뭄이었던 해에는 좁게 형성된다. 따라서 연속된 나이테가 보여 주는 지물과도 같은 패턴은 나무의 생육 연대를 정확히 추산하기 위한 단서가 된다.

2005년에 400개의 나이테를 가진 400년 된 수목을 베어 냈는데, 그 단면에서 1643년부터 거슬러 1628년까지 16년

20년도 LEET 언어이해 28번 문항

특히 리트 시험에서는 텍스트 구조를 분석하려는 시도조차 복잡한 해석으로 이어져 더 어려운 방향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는 구조에만 집중하다가 전체 의미를 놓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판례요지

[1] 건축허가권자가 건축물허가처분을 하면서 그 처분사유로 건축물허가 사유뿐만 아니라 구 소법 03. 5. 29. 법을 제6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㉔ 제8조 제1항에 따른 소법처장의 건축부동의 사유를 고 있다고 하여 그 건축물허가처분 외에 별개로 건축부동의처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건허가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건축물허가처분에 관한 통속에서 건축법상의 건축물허가 사유뿐만 아니라 소법처장의 부동의 사유에 관하여도 다룰 수 있다.

[2] 민원신무처리(의견)법 제4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2002. 8. 21. 대통령령 제17719호로 개정) 제15조 제1항, 제2항,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은 민원사항의 신청이 있는 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민원에 들어 있는 경우에는 보관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관을 요구한다.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할 때에는 7일의 기간 내에 다시 보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 내에 민원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접수된 민원서류를 되돌려 보낼 수 있도록 규정되어 는데, 위 규정 소정의 보관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보관이 가능한 경우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 내용 형식적·물리적인 요건이거나, 실질적인 요건에 관한 흠이 있는 경우라도 그것이 민원인의 단순한 나 일시적인 사정 등에 기한 경우 등이어야 한다.

[3] 건축물허가처분을 하면서 그 사유의 하나로 소법처장과 관련한 소법처장의 건축부동의 의견을 알았으나 그 보관이 가능한 경우, 보관을 요구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한 것은 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한 사례.

대법원 판례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할 경우, 판례에 대해서도 전체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고 논리적인 접근에만 집착하게 됩니다. 이는 판례의 본질적 의미를 놓치고 형식적인 분석에 머무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독해력이 요구되는 시험을 난이도에 따라 분류하면,

3. 수능

2. LEET

1. 판례 및 법학 서적, 그리고 논술 순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는 리트 사설 모의고사 문항을 출제할 만큼 LEET 문제에 익숙하지만, 논술은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독해력을 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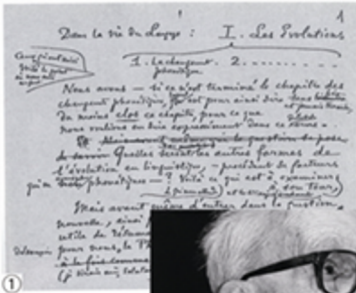
논술은 단순히 제시된 내용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제시문 속 논리적 구조와 숨겨진 함의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신의 논리를 전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논술에서 요구되는 독해력은 단순히 정확성과 속도만이 아니라, 깊이 있는 사고와 분석 능력까지 포함합니다.

결국 논술에서 합격을 하고 싶다면,

독해력을 키워야 합니다.

1. 서론: 독해란 무엇인가?

나. 기호학적 관점에서 본 기표와 기의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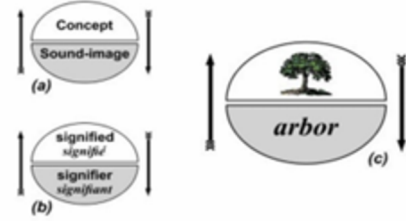


②

페르디낭 드 소쉬르
언어학자 | 기호학의 아버지

기표

기표란 언어에서 감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측면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바다'라는 단어에서 '바다'라는 문자가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이나, /bada/라는 소리를 들을 때의 음성이 바로 기표입니다. 이것을 소쉬르는 '시니피앙'(Signifiant)이라고 불렀으며, 이는 우리가 언어를 통해 직관적으로 느끼는 '형식'이나 '표현'을 가리킵니다.



기의

기의는 언어가 전달하는 '내면적 의미'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바다'라는 단어를 볼 때 떠오르는 넓고 푸른 물의 공간, 그리고 그곳에서 느껴지는 고요함이나 거대한 힘 같은 이미지가 바로 기의입니다. 소쉬르는 이를 '시니피에'(Signifié)라고 불렀으며, 이는 언어를 통해 연상되는 개념이나 아이디어를 뜻합니다. 기의는 단어 자체의 형식이 아닌, 그 형식이 표현하는 '내용'과 '의미'를 말합니다.

독해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단순히 텍스트를 읽는 데 그치지 않고, 텍스트 속에 담긴 의미를 끊임없이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텍스트 자체, 즉 기표(언어적 형식)가 아니라, 그 기표를 통해 전달되는 기의(내용과 의미)입니다.

텍스트의 형식에만 집중하는 것은 독해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며, 핵심은 그 형식을 넘어 숨겨진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연결하는 데 있습니다.

1. 서론: 독해란 무엇인가?

나. 기호학적 관점에서 본 기표와 기의



$$A + B + C + D + E = \text{의미}$$

라캉에 따르면, 인간의 욕망은 단순한 필요나 충동 이상의 것이다.

라캉에 따르면, 인간의 욕망은 단순한 필요나 충동 이상의 것이다.

라캉에 따르면, 인간의 욕망은 단순한 필요나 충동 이상의 것이다.



1. 서론: 독해란 무엇인가?

나. 기호학적 관점에서 본 기표와 기의



$$A + B + C + D + E = \text{의미}$$

라캉에 따르면, 인간의 욕망은 단순한 필요나 충동 이상의 것이다.

라캉에 따르면, 인간의 욕망은 단순한 필요나 충동 이상의 것이다.

거센 바람이 불고 화제가 잇따르자 정(鄭)나라의 재상 자산(子產)에게 측근 인사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라고 요청했지만, 자산은 "천도(天譴)는 밟고, 인도(人道)는 가깝다"라며 거절했다. 그가 보기에 인간에게 일어나는 일은 더 이상 하늘의 뜻이 아니었고, 자연 변화 또한 인간의 ◎ 화복(禍福)과는 거리가 멀었다. 인간은 자연 변화를 파악하면 ◎ 인간을 재난을 대비할 수 있고, 인간사는 인간 ◎ 스스로를 ◎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에 기초하여 ◎ 인간은 ◎ 인간만의 문제 해결 법을 ◎ 확대했고, 정나라의 ◎ 인간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그가 살았던 정나라는 요충지에 위치한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춘추 초기부터 제후국의 정벌 대상이었고, 실제로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기도 하였다. 춘추 중기에는 귀족 간의 정치 투쟁이 벌어져 자산이 ◎ 질정(執政)하기 직전까지도 정변이 이어졌다. 따라서 귀족 정치의 위기를 수습하고 부국강병을 통해 ◎ 귀족 제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이 정나라와 자산에게 ◎ 부여된 과제였다. 그래서 그는 집권과 동시에 귀족에게 집권 ◎ 정치적, 경제적 특권을 ◎ 약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 ◎ 추진하였다. 그는 귀족이 독점 ◎ 인분을 ◎ 축소할 수 있게 하였고, 이것을 문서화하여 세금을 부과하였다. 이에 따라 백성들은 ◎ 개간(開墾)을 통해 경작지를 늘려 생산을 증대하였고, 국가는 경작지를 계량하고 등록함으로써 민부(民富)를 국부(國富)로 연결시켰다. 아울러 그는 중간 계급도 정치 특권을 논할 수 있도록 하여 귀족들의 정치 기반을 약화시키는 한편,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형법을 상문화하여 정(鄭)에 세김으로써 모든 백성이 법을 알고 법에 따라 처신하게 하는 법치의 체계를 세웠다. 상문법 도입은 귀족의 임의적인 법 제정과 집행을 막아 그들의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조치였으므로 당시 귀족들은 이 개혁 조처에 반발하였다.

독해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단순히 많은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문장 단위로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읽은 양이 아니라, 한 문장 한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의미를 깊이 있게 해석하는 과정입니다.

<C>

대부분의 기능주의 사상가들에게 있어 사회는 서로 밀접히 조화하는 구조들로 구성된 하나의 통합된 전체로서 다루어진다. 인간에게 있어 신체 각 부위는 필수적으로 서로 조화하며 작동한다. 만약 신체 각 부위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 유기체의 생명은 위험에 처하게 된다. 뒤르켐에 따르면, 이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한 사회가 계속해서 그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구체적 제도들(예컨대 정치체계, 종교, 가족, 교육체계)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작동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한 사회의 연속성은 협동--기본적 가치에 대한 그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일반적 합의 혹은 동의라고 차례차례 추정한다--에 의존한다.

갈등에 주로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은 아주 다른 전망을 가진다. 그들의 주된 가정은 마르크스의 계급 투쟁에 대한 설명을 하나의 보기로 사용해 보면 쉽게 윤곽이 그려진다. 현저한 불평등이 존재하므로, 사회 구조를 '만들어 내는' 이해관계의 분화가 존재한다. 이러한 이해관계의 갈등은 일정 시점에서 급진적 변동 과정을 발생시킬 수 있는 계급간의 적극적 투쟁으로 발발한다. 이러한 관점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 모두가 마르크스만큼 계급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즉, 다른 분화들 예컨대 인종 집단이나 정치 분파들 사이의 분화들이 갈등을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것으로 간주된다. 대부분의 강조가 갈등집단에 주어지고 있으며, 사회는 본질적으로 긴장이 가득한 것으로 인식된다. 심지어 가장 안정적인 사회체계조차도 적대적 집단의 불안한 균형을 나타내는 것이다.

- 앤터니 기든스, 『현대 사회학』에서

위 제시문은 실제 고려대 논술 기출 문제입니다.

이 지문을 읽고 한 문장 단위로 의미 파악이 어렵다면,
이분법과 스킬을 고민하지 말고 독해력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독해력 강화 프로그램이 궁금하신 분을
위해 넣었습니다.

딱 45일만 투자하면 됩니다.



데카르트, 칸트, 쇼펜하우어, 정익론, 연금, 세계평화 등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수많은 개념과 배경지식을, 수능과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딱 맞게 정리하여 45일 만에 완벽히 정복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아마 단 한 번도 뇌를 제대로 활용해 독해를 해본 적은 없을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는 했지만, 정확한 방법으로 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정확한 방법으로 열심히 할 차례입니다. 리트, 법학, 철학 등 다양한 소재의 문장을 읽으며 뇌와 독해의 '피지컬'과 기초 체력을 키울 시기입니다. 45일 만에 지능의 후천적 발달을 이루어냅니다.

논술과 수능 국어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사람은 제시문을 정확히 읽어내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기출 분석, 선지 분석, 답안 작성법 등 본질이 아닌 부분에 시간을 쏟지 마세요.

아래 내용을 집중적으로 배웁니다.

- 문장 단위별 독해 훈련**

이 세션은 문단이나 전체 지문이 아닌, 한 문장씩 집중적으로 이해하는 훈련에 초점을 맞춥니다. 문단이나 방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어렵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한 문장을 정확히 분석하고 완전히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총 45일 과정으로, 하루에 약 10개의 문장을 학습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 문장 구조 훈련 세션**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과 수능 국어에서, 모든 단어는 알지만 문장의 구조 때문에 이해가 어렵거나 분석이 잘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세션은 문장을 하나씩 세밀하게 분석하며 학습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최대한 많은 문장을 체화함으로써 유사한 문장 구조를 마주했을 때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하도록 돕습니다.
- 스키밍 속도 향상 세션**

이 세션은 영상을 시청한 후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이를 암기하며, 다른 지식과 연결하여 궁극적으로 스키마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단순히 영상을 반복해서 보고 정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영상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함으로써 뇌의 처리 속도와 정보 처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지식의 기반: 고전과 사고력 강화 세션**

독해력 강화 프로그램의 모든 콘텐츠는 제가 직접 제작한 것으로, 이시윤 교수의 신민사소송법, 이진경 교수의 저서, 박균성 교수의 행정법을 비롯한 철학, 역사, 법학 등 각 분야의 권위 있는 대가들의 저서를 기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지식과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며, 지식의 위계 속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이해를 얻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한 문장을 완벽히 이해하는 커리큘럼

주 5회(월~금)

- 해당 날짜 PDF 및 독해 자료 다운로드**

독해력 향상 프로그램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학생의 진도에 맞는 수업 자료를 온라인 플랫폼에서 다운로드하여 학습을 진행합니다."



- 시간 제한 없이 10문장 분석하여 작성**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이나 수능 국어를 준비하는 학생 모두 하루에 3시간 이상, 혹은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어려운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선별된 문장 10개를 완벽히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효율적인 학습을 제공합니다.

- 본인의 게시판에 업로드 및 질문**

자신의 게시판에 과제를 업로드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빨간펜으로 표시하거나 카르마 아카데미아 카톡을 통해 질문하여 모든 의문과 이해되지 않는 점을 해결합니다.



- 배경지식 강의 시청 및 단권화**

배경지식 세션에서는 10분 미만의 강의와 칼럼을 활용해 노트에 단권화하며 지식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궁극적으로 이를 암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분법 자료 50개

사실 vs 가치

사실: 실제로 존재하거나 일어난 일이나 상태.

가치: 사물이 지니고 있는 중요성이나 의미.

현상 vs 본질

현상: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이나 상태.

본질: 사물이나 현상의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성질.

주장 vs 근거

주장: 자신의 의견이나 신념을 강하게 표현하는 것.

근거: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나 자료.

보편 vs 특수

보편: 모든 대상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

특수: 특정한 상황이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

연역 vs 귀납

연역: 일반적인 원리에서 특수한 사례를 이끌어내는 추론 방식.

귀납: 개별 사례에서 일반적인 원리를 도출하는 추론 방식.

이론 vs 현실

이론: 사물이나 현상을 체계적으로 설명한 지식.

현실: 현재 실제로 존재하거나 일어나는 상태.

선험 vs 후험

선험: 경험 이전에 존재하거나 인식되는 것.

후험: 경험을 통해 얻어진 지식이나 판단.

필연 vs 우연

필연: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우연: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는 상황.

원인 vs 결과

원인: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

결과: 원인에 의해 나타나는 상태나 상황.

개체 vs 전체

개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하나의 개별적인 것.

전체: 개체들이 모여 이루어진 통합체.

자연 vs 인위

자연: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원래의 상태.

인위: 인간의 활동으로 만들어지거나 형성된 것.

객관 vs 주관

객관: 개인의 관점을 배제하고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인식되는 것.

주관: 개인의 생각이나 감정에 따라 인식되는 것.

정치 vs 경제

정치: 사회나 국가의 권력을 획득, 유지, 행사하는 활동.

경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분배, 소비하는 활동.

권리 vs 의무

권리: 법적으로 보장된 이익이나 자유.

의무: 반드시 해야 하는 책임이나 역할.

공익 vs 사익

공익: 사회 전체의 이익.

사익: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

자유 vs 평등

자유: 외부의 구속 없이 행동할 수 있는 상태.

평등: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지는 상태.

개인 vs 사회

개인: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하나의 인간.

사회: 개인들이 모여 이루는 공동체.

진보 vs 보수

진보: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경향.

보수: 전통과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경향.

행위 vs 결과

행위: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행동.

결과: 행위로 인해 나타나는 최종적인 상태.

정의 vs 효율

정의: 공정하고 올바른 상태.

효율: 적은 노력으로 최대의 결과를 얻는 상태.

도덕 vs 법

도덕: 개인과 사회가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 규범.

법: 국가가 정한 강제적인 규범.

이성 vs 감정

이성: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능력.

감정: 기쁨, 슬픔 등 마음의 상태나 느낌.

문화 vs 기술

문화: 인간의 삶과 관련된 모든 정신적, 물질적 성과.

기술: 인간이 특정 목적을 위해 활용하는 방법이나 도구.

동질 vs 이질

동질: 성질이 서로 같은 상태.

이질: 성질이 서로 다른 상태.

장기 vs 단기

장기: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는 것.

단기: 짧은 시간 동안 지속되는 것.

양 vs 질

양: 수치적으로 측정되는 특성.

질: 사물의 본질적 특성.

합리 vs 비합리

합리: 이치에 맞는 논리적 상태.

비합리: 논리에 맞지 않는 상태.

기회 vs 결과

기회: 어떤 일을 하기 좋은 시기.

결과: 기회를 통해 이루어진 상태나 성과.

지식 vs 지혜

지식: 경험과 학습을 통해 얻은 정보와 사실.

지혜: 지식을 응용하고 판단하는 능력.

생산 vs 소비

생산: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활동.

소비: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활동.

자연 vs 인간

자연: 인위적이지 않은 원래의 상태.

인간: 사고와 감정을 가진 존재.

고정 vs 변화

고정: 변하지 않는 상태.

변화: 다른 상태로 바뀌는 과정.

정치 vs 윤리

정치: 권력의 획득과 사용에 관련된 활동.

윤리: 도덕적이고 올바른 행동 기준.

권력 vs 책임

권력: 다른 사람을 통제하거나 지배할 수 있는 힘.

책임: 맡은 일을 수행해야 하는 의무.

창의 vs 모방

창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

모방: 기존 것을 본떠 따라하는 행동.

전통 vs 혁신

전통: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온 문화와 관습.

혁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변화.

경쟁 vs 협력

경쟁: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 다투는 과정.

협력: 함께 힘을 합쳐 일을 이루는 활동.

중앙 vs 지방

중앙: 국가나 조직의 중심이 되는 곳.

지방: 중앙에서 떨어진 지역.

기본권 vs 제한

기본권: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인 권리.

제한: 특정 조건이나 범위로 제약을 두는 것.

전쟁 vs 평화

전쟁: 무력을 통해 충돌하는 상태.

평화: 갈등과 충돌이 없는 상태.

실재 vs 허구

실재: 실제로 존재하는 것.

허구: 상상이나 꾸며낸 것.

개혁 vs 안정

개혁: 기존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고치는 것.

안정: 변하지 않고 평온한 상태.

공정 vs 편향

공정: 치우치지 않고 올바른 상태.

편향: 한쪽으로 치우친 상태.

동기 vs 결과

동기: 행동을 시작하게 만드는 이유.

결과: 동기로 인해 나타난 최종 상태.

자립 vs 의존

자립: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능력.

의존: 다른 것에 기대어 도움을 받는 상태.

이론 vs 실천

이론: 사물의 원리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지식.

실천: 생각이나 계획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인간 vs 기계

인간: 사고와 감정을 가진 존재.

기계: 인간이 만들어 사용하는 도구.

지속 가능성 vs 성장

지속 가능성: 환경과 자원을 유지하면서 발전하는 것.

성장: 규모나 수준이 커지는 것.

인권 vs 국가

인권: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

국가: 사회 조직과 법 체계를 가진 공동체.

정책 vs 실행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침.

실행: 정책을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것.

이분법 자료를 활용하는 모든 수험생에게.

지식을 쌓고 학습을 하는 과정을 ‘뇌과학적’으로 하길 바랍니다.

이분법 사고를 효과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는 책을 3회독하면서 각 회독마다 학습의 목표와 초점을 조금씩 달리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첫 번째 읽기는 개념의 전반적 이해와 스키마 형성에 중점을 둡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개념을 익히되, 자신의 배경지식과 최대한 연결해가며 읽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분법적 사고의 주요 개념들을 기존에 알던 주제나 상황과 비교하며 이해하면, 복잡한 개념들도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부분에 가볍게 표시하거나 메모해두면, 이후 회독에서 다시 확인하기 쉽습니다.

두 번째 읽기는 이러한 기초 이해를 심화하고 구체적인 예시와 연결해보는 단계입니다. 1회독에서 표시해 둔 부분을 중심으로 책에서 제시하는 이분법적 사례와 본인이 생각하는 예시를 비교하며 각 개념을 깊이 탐구해 보는 것입니다. 배경지식과 이분법 사고의 실제 사례를 맞춰보는 이 과정에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개념이 더 명확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배경지식의 스키마와 이분법 사고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과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읽기에서는 이제까지 익힌 개념을 실제로 적용해보는 연습을 통해 사고를 체계화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읽기만 하는 대신, 이분법적 사고를 활용하여 간단한 글을 써보거나 일상 상황에서 이분법을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배운 내용이 더욱 구체화되고, 새로운 사고의 틀로 자리잡게 됩니다. 이렇게 세 번의 읽기 과정을 통해 이분법 사고는 단순한 개념이 아닌 실천적인 사고 방식으로 체득되며, 독자가 자연스럽게 사고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도구로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모든 문의는 아래 링크로 부탁드립니다.

독해 수업

절대 문제풀이 하지 마세요.

 소테리아의 길 2024. 12. 24. 21:40

URL 복사 트윅 ⋮

추상적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아래 칼럼을 적었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내가 지금 하는 공부가 어떤 점에서 필요한지 본인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가. 문제풀이는 객관식 시험(수학, 과학, 법학)에서나 중요하다.

I. 문제풀이는 주로 수학, 과학, 법학과 같은 객관식 시험에서 "무엇을 알고 있는가"를 빠르게 점검하는 데 효과적이다.

1. 법학과 같은 과목은 무엇을 아느냐 모르느냐 지식을 확인하는 시험이 강하다. 특히 민법 같은 과목은 양치기와 객관식 문제를 많이 풀면 풀수록 지식이 정립되는 특성이 있다. 이는 출제되는 경향의 문제만 나오고 출제은행식으로 문제를 만들기 때문이다. 반면 국어라는 과목은 지문의 이해가 우선시된다. 그렇기에 절대로 문제풀이에 8할 이상을 쏟으면 안 된다.

(1) 그러나 국어 시험은 지문을 읽고 서지를 분석하여 정답을 찾는 이해력과 독해력을 평가한다. 문제를 푸는 방식에 치중하며 지문의 핵심 논지를 파악하거나 글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소홀해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문제풀이 자체가 시험에서 요구하는 본질적인 능력을 키우는데 기여하지 않는다.

네이버 블로그 : 소테리아의 길

<https://open.kakao.com/o/sOp5zYWg>

오픈 카톡방 : 카르마 아카데미아